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

조용목 목사 평지협 신년모임에서 '바른신앙 자세' 강조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배명길 장로)는 지난달 21일(목) 오후 5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대강당에서 신년하례예배 복음통일기도회를 갖고 새로운 한해를 하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으로 말미암은 남 북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배명길 장로

로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장미경 집사의 찬양,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후 5:17, 고전 2:13-14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분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배격하며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은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와 회원들이 될 것"을 당부한 뒤 "거룩과 명예, 진실과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나타내 보임으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3H(거룩, 명예, 진실과 정직)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과 위정자들을 위해', '복음통일을 위해' 공동회장 라뎅한 장로, 김수관 장로, 박만길 장로가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대표회장 배명길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형통한 날이 이어지기를 축복한 뒤 종되는 운동, 통일을 준비하는 운동, 일하기 운동, 기도회 훈련 등의 계획을 실천하는 한해가 될 것을 밝혔다.

사무총장 강부영 장로는 광고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조용목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원근 각처에서 참석하신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회원들은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한국교회의 재도약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다음 모임은 3.1절 기도로 모인다.

계속해서 회계 도래관 장로의 헌금기도 후 합심기도로 '교회연합과 교계지도자들을 위해', '대통령



조용목 목사, '목회자의 임무와 역할' 주제 특강

부흥사회 신년모임 ...산간벽지, 농어촌·도시 미자립교회 자비량성회 지원키로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달 28일(목)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임원회 신년모임을 가졌다.



강사
조용목 목사

1부에는 영향력 있는 부흥사로 활동하기 위한 '목회자의 임무와 역할'이란 주제로 교단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이 있었다.

조용목 목사는 이날 특강시간을 통해 특히 부흥사들은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설교를 해야 하

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 40여 년의 현장 목회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해줌으로서 부흥사들이 집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진 내용들을 많이 깨닫고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임회원 모임에서 신재영 회장은 조지개편을 통해서 부흥사회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조직으로 정예화시켰고 앞으로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부흥사회회장을 정비하여 부흥사회의 임·회

원들에게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해주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잘 숙지하여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부흥사회에서는 2016년에도 산간벽지와 농어촌 및 도시 미자립교회들을 위한 자비량 부흥성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고, 부흥사들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세미나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흥사회 소속 회원교회 상호간 왕성한 강단교류를 통한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사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늘려가기로 결의했다.



푸르초장은
바람을
스기내

‘자유의지를 선용(善用)하는 길’

조용목 목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멀어 즐거워할지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2편)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능과 함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자유의지는 본능에 작용하고 본능을 조절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것과 아울러 거기에 반응해야 할 자신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와 세상 종말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만드신 물질과 자연법칙은 사람의 의지로는 보태거나 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없애지 못합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릴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된 일들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또한 천지가 소멸된다는 것을 믿든지 혹은 거부하든지 각 사람은 의지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믿고 순종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둘째는, 죄인의 구원에 관련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운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행하신 구원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종교적인 계율과 교훈 정도로 크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을 지닌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은 사건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려는 주님의 의지에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에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접촉하도록 적극적으로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순종의 손, 감사의 손, 헌신의 손, 기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성령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일꾼” 당부

청주 아가페교회, 총회장 진등용 목사 초청 일일부흥성회



설교
총회장 진등용 목사

교단 총회장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는 지난달 29일(금) 저녁 청주 아가페교회(담임 이광신 목사)에서 일일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했다.

아가페교회에서 총회장 진등용 목사를 일일부흥성회 강사로 초청

하여 이루어진 이번 성회에서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행 13:21-23 말씀을 본문으로 '주께서 쓰시는 일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 주의 종을 섬기는 일꾼,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성도들을 축복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한교연, WEA 지도자대회 불참하기로 결의

한국교회연합 제5-2차 임원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 제5-2차 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2016 한국교회 탄원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주요 안건을 토의했다.

58명(총석24 위임34)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WEA와 한기총이 주최하는 리더십포럼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지난 제5회기에도 WEA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교연이 한기총과 함께 대회를 주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 당시에도 한기총의 이단분제로 인해 공동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을 확인하고, 금번 포럼에 한교연은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임원회는 또한 WEA 포럼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임원회의 결의를 회원교단에도 공문을 보내 공지하기로 했다.

이날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는 2016 한국교회 탄원운동의 경과를 보고하고 종교인과



세, 차별금지법, 동성애 대책, 이슬람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대처할 한국사회발전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탄원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회 탄원운동은 한국교회의 이미지 추락을 Stop하고 Tum하여 Up시키는 운동으로 성도들은 매일 천원-만원, 교회는 10만원의 후원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실천운동이다.

한교연은 1월 27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

계동 백사마을에 사랑의 연탄 2만장을 전달하고 임직원 40여 명이 직접 리아커를 끌고 지게를 지고 나르는 봉사 참여하기로 했으며, 2월 4일(목) 오전 11시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역 노숙자 급식소인 해돋는마을에서 300여 노숙인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사랑의 밥퍼행사를 2월 13일(토)에는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중세례식과 전방부대 위문행사를 진행한다.

기독교자유당 고문단, 비례대표의원 배출 위해 기도

이슬람, 동성애 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입성 강조

기독교자유당(총재 손영구 목사)은 지난 달 25일 오전 7시 30분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벌아홀에서 고문단기도회를 갖고 오는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기독교자유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기독교자유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해 한국교회 대변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고 강력한 호소하고 이날 참석자들을 기독교자유당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후원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이슬람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인과세법 등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선 입법기관인 국회 진출을 통한 기독교를 대변할 인물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비례대표는 지역구원과 달리 득표율에 의해 결정되기에 한국교회가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의원을 배출하자”고



호소하고, 교계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기도회는 기지협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김자연 목사(총신대 전 총장)가 ‘한사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으며, 유홍목 목사(원동선교회 회장)·정인도 목사(기침 증경총회장)·김재송 목사(예성 증경총회장)·한정영 목사(예장개혁신구제 증경총회장)·장병찬 목사(기지협

상임부회장)가 ‘북한 핵 도발 저지와 공산권 붕괴’, ‘기독교자유당 필승과 정치권 안정’, ‘기독교자유당 국회입성’, ‘동성애자와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멸’, ‘정치권의 복음화와 기독교 자유당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회는 계속해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동회장의 격려사, 오관석 목사(기침 증경총회장의 축사, 최병두 목사(기지협 상임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 국가기도회

장헌일 목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힘 모아야



한반도 평화통일과 나라를 위한 국가기도회가 지난달 2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기도실에서 열려 나라와 국회를 위해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헌일 목사(생명나무교회, 국가기도운동연합회 대표회장)는 단 1:8-17과 딤후 2:1-7 말씀을 본문으로 ‘뜻을 정한 지도자를 위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각 영역의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말씀을 기본

으로 하는 전문인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시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지도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성명자 권사(마리아행진 팀장)의 대표기도와 함께 마리아행진 회원들은 중보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를 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선출을 위하여’, ‘정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의로운 입법제정을 위하여’, ‘사

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한반도와 북유럽통일과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군과 50만 국군장병들을 위해’, ‘통일시대를 주도할 다음세대 양육을 위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공공성 실현과 성도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기도회를 주관한국가기도운동연합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기도운동 연합기관으로 북유럽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영성과 전문성 그리고 좋은 성품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며 국회를 비롯한 정부 등 국가기관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를 위한 기도하는 연합기관이다.

특히 이번기도회는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각 영역의 지도자 들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는 마리아행진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회를 위한 국가기도회를 지속적인 국가기도운동에 동역하기로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연합기도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원장에 박재윤 변호사 선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대법원 설립인가, 이하 중재원)은 지난달 26일(화)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총회에 앞서 10시 30분에는 제9차 정기이사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총회의 주요안건은 지난 1년간의 상단, 회계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 경동교회 장로)가 신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성원 변호사(초대원장)가 상임고문으로 양인평 전 원장은 명예원장으로 각각 추대되었다.

신임원장 박재윤 변호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의 화해와 중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재원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서울중앙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10월부터는 부산지방법원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지역 조정위원 11명을 선정하여 조정 업무 수행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 외에,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중재원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

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중재원은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사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돕고자 상반가에는 포럼을, 하반가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교회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임원장 박재윤 변호사는 전 대법관이며,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바울부흥협, 신년예배 및 실행위 개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등 특별기도시간도 가져

세계바울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서울 천호동 리더스부대에서 2016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운영회장 전용만 목사의 사회로 선교회장 문원순 목사의 기도, 노병훈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심재선 목사는 설교 및 신년사를 통해 “예배는 기독교의 기본이며 기독교의 모든 의식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기대업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의 목사의 헌금송, 사무총장 김중석



목사의 광고, 심재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열린 실행위원회는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이성민 목사의 개회기도, 황준의 목사·김중석 목사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국가안보와 경제회복’,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특별기도시간을 가진 후 합심기도를 갖고 2016년 한반도 평화와 화해·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

동 협의회 다음 모임은 3월 1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통합피어선총회, ‘교회성장세미나’

‘목회의 방향과 목회자의 인성’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피어선총회(총회장 김희선 목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평택대학교(총장 조기홍) 국제 제3관에서 총회신하 각 노회 목사를 대상으로 2016년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의 방향과 목회자의 인성’이라는 주제 아래 ‘교회성장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고병



훈 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김희선 목사가 개회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했다.

세미나 일정은 18일 신현수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가 ‘아더 피어선 목사의 선교관, 목회관’, 19일 유윤종 목사(영태대학교 신학대학원 전 원장)가 ‘기독교역사학’, 20일 고시영 목사(세계대한의원연합회 상임회장)가 ‘성경적 인문학’, 21일 김요셉 목사(예장대신 증경총회장)가 ‘목회자가 가야 할 길’, 허부영 박사(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소장)가 ‘복음적 통일론’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했다.

통합피어선총회의 ‘교회성장세미나’는 계속해서 증경총회장 원종문 목사의 총평 및 내빈소개에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총회장 김희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루터대-샘병원, 상호협력 위한 협약 체결

루터대학교는 지난달 20일(수)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샘병원과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상호협력 및 지역발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샘병원 박상은 대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올해 장학 50주년을 맞는 루터대학교와 또 2017년에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샘병원이 글로벌선교병원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협약을 맺게 돼 큰 날개를 다는 듯한 느낌이다”면서, “앞으로 루

터대학교가 갖고 있는 휴먼서비스학과와 샘병원의 전인치유와 전문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협력이 기대된다”고 협력소감을 밝혔다.

특히 “루터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는 샘병원의 재활의학과와 함께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터대학교 김영호 총장은 답사에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병원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대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MOU를 맺은 것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것이라며, 루터대학의 특성이 지역과 대학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처음 시도로 대학과 병원이 힘을 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TS, 미디어목회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회 부흥과 기독교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위해 노력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달 29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예배 콘텐츠 교류 및 기독교 사

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예배 콘텐츠 교류 ▲공익 캠페인 협력(교회교회 방문, 부님 지교회, 출산장



려, 다음세대 교육(선교 등) ▲상호 매체를 통한 교환 광고 및 홍보 협력 등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CTS의 복음 콘텐츠와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을 구현하며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성을 마련하는 미래목회포럼의 시너지 만나 앞으로 기독교 이미지 회복을 비롯한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CTS는 이 땅의 부흥의 세대를 양육하고 소외된 자를 도우며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제5회 예하성부산신학교 졸업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 가라”

부산지방회

예하성부산신학교(학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달 26일(목) 오전 11시 예하성부산신학교(순복음빛교회-담임 조은혜 목사-내 위치)에서 제5회 졸업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무처장 박용호 목사(순복음오일교회)의 사회, 조병희 목사(교수, 기장 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학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가 행 20:17-25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고 목사는 “4년이란 세월동안 선지동산에서 사명자의 바른 길을 가기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길을 가야한다.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다. 그 사명을 잘 감



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기를 가슴에 앓고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는 졸업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졸업생 3명에게 졸업장수여와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오경덕 목사(교수, 영남동지방회장)의 축사, 이사장 한명정 목사(은혜와평화교회)의 권면, 재학생 대표 배길선 학우의 송사, 졸업생 대표 김철호 학우의 답사, 사회자의 광고, 학장 고영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념사진촬영과 식사를 하였다.

신년하례예배,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져야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유영욱 목사)는 지난달 5일(화) 오전 11시 목포시내산교회에서 2016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세도로 목사의 사회, 중경회장 조남연 목사(순복음송죽교회)의 기도, 서기 민순복 목사(무안온누리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정구 목사가 롬 1:16-17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직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진정한 회개는 성화되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죄는



지리나는 것이며 반복하는 것이라 복음의 능력인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져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이어 지방회장 유영욱 목사(강진순복음교회)의 새해인사 후 중경회장 김우만 목사(순복음의금교회) 축도로 마쳤다.

WEA 종교간 통합 일치 주장... 배도의 길 조장

신년모임...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단·교회 자부심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달 31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예수나라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 지방회 신년모임을 갖고 제주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부 경건예배에서 지방회장 김건수 목사는 살후 2:1-3 말씀을 통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기독교 안에서 ‘배도(背道)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이기에 우리 남은 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리더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WCC와 WEA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종교간 화합과 일치를 주장하며 종교통합을 통한 배도의 길을 조장하고 있는 음모와 실체를 공개한 영상과 책자를 보여주며 제주지방회 소속 교회들은



마치 소아시아 사대교회가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 3:4)고 한 것처럼 가장 복음적인 교단에 남아 있어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맡겨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해가는 가장 성경

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되자고 독려했다.

2부에는 식사와 대교시간을 통해 각 교회의 근황을 전하며 앞으로 지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경북·영남동지방회 연합 신년시무예배

주어진 복 잘 관리하는 ‘대중지정’의 삶 당부

대구경북·영남동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는 지난달

14일(목) 오전 11시 포항안디옥교회(담임 배진기 목사)에서 연합 신년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신재영 목사(대구경북지방회장)의 사회, 오경덕 목사(영남동지방회장)

의 기도, 배진기 목사(교단 중경총회장의 설교, 정진학 목사(대구경북지방 총무)의 광고, 최용운 목사(영남동 중경회장)의 축도로 드러났다.

배 목사는 신 5:32-33 말씀을 본문으로 ‘대중지정(大中至正)’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2016년 실수를 하지 말고 주어진 복을 잘 관리하여 대중지정(大中至正)의 삶을 이루도록 하자”면서 “언행신절(言行慎節)의 삶,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중도(中庸中道)의 삶,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하신도를 행하는 경청순종(敬聽順從)의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이후 새해 신년예배로 모인 지방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덕담을 나누며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을 갖고, 안디옥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心和 대교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엘벤엘교회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

‘선한 청지기’의 사명감당 다짐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 엘벤엘교회(담임 서해범 목사)는 지난달 31일(주일) 오후 4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동교회 대성전에서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때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류지석 목사의 사회, 제무 신동철 목사의 기도, 회계 류성진 목사의 성경봉독, 교단 중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롬 12:3-8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뫼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임직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의 서약 및 공



포가 있었으며 엘벤엘교회 서해범 목사의 권면, 지방회 중경회장 김창영 목사의 권면, 부회장 황용연 목사의 축사, 진주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류지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장로장립자 박학봉 장로와 안수집사 임

부족한 사람들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전하고 그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주신 담임 서해범 목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안수위원으로는 서해범 목사, 강기선 목사, 김창영 목사, 권우석 목사가 예식을 집례했다.

순복음사랑의교회 창립... 한 알의 밀알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수 목사)는 지난달 16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사랑의교회(정형식 목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뜨겁게 기도했다.

동교회 새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최동순 목사의 기도 후에 지방회 중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요 12: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창립하는 교회이니 만큼 목회자와 가족 그리고

창립 멤버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한 알



의 밀알이 되어 복음을 위해 죽도록 헌신 중심”하기를 권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소망했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경수 목사의 창립 선포, 중경회장 이문근 목사와 김윤용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 창립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직전회장 이동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사랑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요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월례회, 교단과 지방회 위해 합심기도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심현일 목사)는 지난달 26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연약민교회(담임 윤현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사회, 부회장 홍영광 목사(은혜와 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심화 6:1-11의 성경봉독, 윤현원 목사(순복음연약민교회)의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설교, 교단과 지방회와 개교회와 성령충만을 위한 합심기도, 회계 박미경 목사의 헌금기도, 총무 이창모 목사의 광고, 지방회장 심현일 목사(임마누엘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드러났다.

2부 월례회는 서기 송준호 목사의 회원점명, 지방회장 심현일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각부 보고와 기타 토의가 이어졌다.

월례회를 마친 지방회원들은 순복음연약민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 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혈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쟁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 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8)
군선교국 처장 김장기 목사 (010-8040-4562)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 생명의 말씀 ■



김 남 수 목사

· 경기남지방회장
· 밝은빛교회 담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분은 언제나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나누기 원하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그분 앞에 삶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구약시대에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듣기조차 두려워했던 소리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회중을 찢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심지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그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 55: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

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죄는 마음에 다른 신을 두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도록 막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요일 3:4),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신 9:7)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죽음이 모든 자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외모를 닮은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윗왕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두고 한탄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 51:5)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회개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니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령으로 애통하여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만큼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지성과 성령의 감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27절에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심령이 갈급하고 주릴 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궁핍할 때 낙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밀의 아름다운 것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원수를 제어하며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시 81: 14-16)

셋째,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행함이 구원과 믿음보다 먼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함은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행함은 믿음에 존재하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열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고모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

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오렌지를 맺듯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가지고 믿고 거둔단 자는 이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어야 하며 하나인 것입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신앙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죽은 나무처럼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신앙은 노가 없는 나뭇배와 같습니다. 그런 배로는 어떤 곳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표류하기를 그치고 노 젓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노를 함께 젓지 못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신앙의 배는 균형을 잃고 제 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여 있는 물이 썩고 사용되지 않는 기계에 녹이 슬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쇠퇴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사역자라면 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너희를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든 언행을 중지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 제재 해지와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제 남북의 문제는 누구라도 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특정 기독교 연합기관이 균형과 사실은 호도한 채, 일방통행식과 잡포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지를 주관하지는 하나님에 대한 외면이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와 역사에 있어, 양심의 소리와 신앙의 잣대 그리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 세상의 잘못된 이념과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합부로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며,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동 정

나사렛대 필리핀·네팔 봉사활동



나사렛대(총장 신민규)가 동계방학을 맞아 활발한 해외봉사 활동을 펼쳤다. 태권도학과 학생과 교수 30여 명은 필리핀

일로일로시에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전했다. 또한 현지 봉사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학교 교실 환경미화, 벽화그리기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CBSi 신임대표이사 하근찬



(주)CBSi 신임 대표이사에 CBS 하근찬 선임기자가 선임됐다. 하근찬 신임 사장은 강원CBS 보도제작국장, CBS 보도국 문화체육부장, 노컷뉴스 팀장 겸 뉴미디어부장, 뉴스제작부장 등을 지냈다. 또한 2014년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앵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 사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칼빈대 5대 총장 최광욱 장로



최광욱 장로(동도교)가 칼빈대학교 제5대 총장에 선출됐다. 학교법인 칼빈대학교 운영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는 지난달 28일 은석교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 장로를 칼빈대 제5대 총장에 선임했다.

국제사랑재단 이사장 김유수 목사



사)국제사랑재단은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에서 신임 이사장 김유수 목사(광주월광교회)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유수 목사는 취임사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기는 봉사 두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선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일부 기독교 연합기관의 일탈된 행동을 경계한다

우리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독교 단체를 구성하고, 개교회나 개교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적으로 시행하므로, 교회 속에 사회의 문제를 사회 속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 가치관의 실현에 따른 것이다. 교회가 정치나 이익 집단이 아니면서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데 기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떠난 대사회적 행위나 발언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의 대표적 연합기관 중 하나가,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들과 편향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달 초 북한이 수소핵폭탄 실험을 했는데, 이 단체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그 내용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북한이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 오면서 마침내 지난 6월에는 하로시마 핵폭탄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되

는 수소핵폭탄 실험 성공 발표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 강행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며, 오히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북한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오직 무력과 군비증강을 통하여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선군 혁명진 정책에만 주력해 왔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북한은 주민들은 굶어죽어도 지금까지 미사일과 핵폭탄 실험을 하는데, 전문학적 비용

을 쏟아 부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유사시 방어적 개념이다. 그런데도 기독교 연합기관이 북한의호전성과 인권의 문제점은 회피하면서, 국가안보와평화를 지키기위한 당연한국가적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아무리 진보적신학에 편향되어있더라도 정당할 논리가될 수 없다.

이 단체는 2014년 3월에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북한 인권만 문제 삼는건 또다른 폭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북한 인권법 제정 중단을 요청한바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4.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변증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 1부, 설교자용 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동용 고시위원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김병묵 서 기 목사 이석호

목양의샘

조일래 목사 // 한교연 대표회장, 인천 수정교회 담임

하나님의 소원 (행 1:4-9)



우리 모두가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다 성령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하기만 했었다면,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자녀답게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다면 아주 멋지고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도 사립마다 다 양할 것입니다. 개개인을 향한 다양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소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필요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는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창1:28-3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창조 속에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 인간이 복받고사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탄으로부터 오는 결핍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2.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루고 얻으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28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인 것입

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 5:48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5-16)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만 만족한다는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며 승리하시는 성도다운 성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우리를 통한 온 세상사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전하라는 지상명령(마 28:19-20)을 내리십니다. 이는 제자들과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언명이자 대위임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죽을 때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찍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나로 인하여 남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소원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천국과 이 민족과 세계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우리의 성령충만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였습니다.(행 1:5,8)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세례, 곧 성령충만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힘쓰고 애쓰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과 승리의 삶,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세례,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세례를 받자 이전에 주님을 배신했던 모슈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다 성령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시는 복된 새해, 복된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거짓말과 거짓말 (행 5:1-11)

커피숍 옆 자리에 앉은 젊은 남녀의 사랑 싸움을 들은 적이 있다. “미움으로 사랑하면 뭐해,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어느 날은 또 이런 대화를 들었다. “말로만 사랑하면 뭐해, 마음이 없는데!” 말과 마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물론 마음이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모르는 거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마음 없는 말은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아기들은 말을 하지 못 하지만 마음이 진실되어 그 표현이 분명하고 솔직하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며, 행복할 때 탄성을 지른다. 반면, 진심을 잃은 어른은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말의 근원인 마음이 진실되지 않다.

마음은 말의 본질이고 근원이다. 그렇기에 말의 부재보다 마음의 부재가 더 슬프다. 거짓 역시 그렇다. 말을 왜곡하는 것보다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 더 깊은 거짓이다. 더 큰 죄인 것이다. 진실만을 말하며 살기는 어렵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거짓을 말한 뒤 혹은 행한 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아는 정도만 되어도 박수쳐 줄만 하다. 하지만 우리 중 대다수가 거짓을 말한 뒤에 그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합리화한다. 자신의 마음마저 속이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한다. 그들은 성전에서 헌금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심판을 받았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나니아야!야아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

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나?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행전 5:9) 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타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말로 행하는 기만은 사람에게 대한 죄다. 그러나 마음을 기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나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자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능과 한계에 절망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한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죄짓은 사람들의 사정, 상황,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늘 말씀하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회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사 1:18) 놀라운 용서의 선언이다. 그러나 마음을 속이는 자는 구원의 기회를 잃는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 1:8)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말보다 본질적인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상처 입으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교연, 백사마을에 연탄 2만장 전달

평균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100만 장 필요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달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명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2만장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봉사위원장 김배울 목사, 예산호헌 총회장 김효종 목사, 서기 이영주 목사 등 임직원과 수경교회 청년 등 40여명은 겨울 한파가 절정에 달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사랑의 연탄을 리어커에 싣고 직접 지게로 저 내려며 추운 겨울을 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연탄의 온기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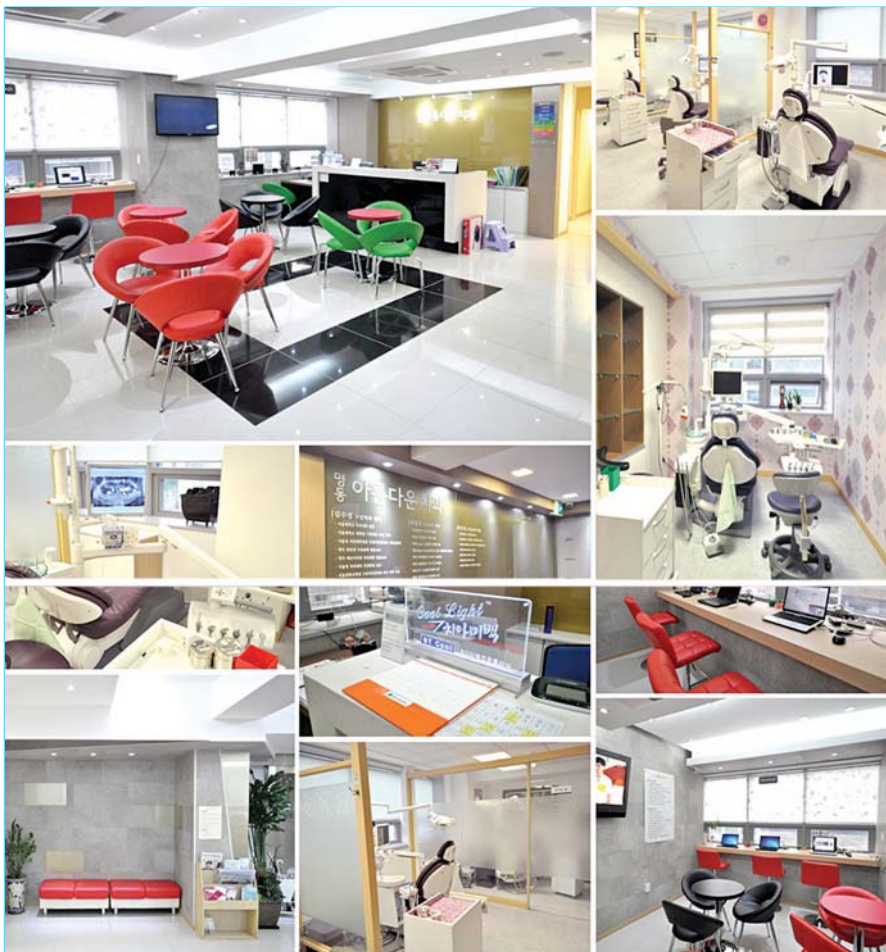
합상공동체 연탄은행(대표 하기복 목사)과 함께 진행한 이날 연탄나눔 행사가 앞서 연탄교회에서 드린 예배에서 김배울 목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봉사를 기뻐하실 것”이라며 “우리의 작은 섬김의 실천이 마중물이 되어 큰 섬김의 기쁜 열매로 돌아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작은 자들의 빛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고 “한교연이 전달하는 연탄이 가난한 이웃들의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지피 지역사회 뿐 아니라 온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하기복 목사는 “이직도 연탄을 때아 겨울을 날 수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16만8천여 가구에 달한다”고 말하고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계속될 연탄나눔기에 한국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조일래 대표회장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백사마을 꼭대기로 이동해 연탄을 지게에 지고 리어커에 실어 내려가 가가호호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백사마을에 기증한 연탄 2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과 봉사위원장 김배울 목사, 예산호헌 총회장 김효종 목사, 서기 이영주 목사, 이동석 목사 등이 후원했다.



명동아름다운치과
MYEONGDONG AROMADOWN DENTAL CLINI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간진료 : 오후 9시까지

찾아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문의 / 상담 : 02-777-1224 , 778-122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교단정책위원장 |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교단 총회장 |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지도교문 |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회장 |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상임총무 | 임종달 목사(전주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총회장 |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총회장 |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총회장 |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총회장 |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증경총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천양교회)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부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상임부총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교회)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사무국장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실무총무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윤성수 목사(전주은평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재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 회계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감사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회원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준회원 정환무 전도사(순복음빛된교회)
---	---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새 가족 모집 및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안·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적혼란의 시대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며 이 땅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신앙회복 및 우리 교단의 부흥, 더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실 분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부흥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 연수 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기도로 준비된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도와 교역자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져나갑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의 신앙회복에 도움을 주어 함께 성령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비량 부흥성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와 목회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어 감동과 열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비량 부흥성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미만의 도시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을 기다립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1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장 목사 진 등 용
총무 목사 김 병 목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 성령충만수련회

주제 :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롬12:1-2)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땅들은 희망의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양지를 섬기시는 전국 여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치유하심과 희망의 싹을 틔우도록 저희 여교역자국이 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춘계 성령충만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령충만함을 받고 큰 부흥을 이루는 2016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주강사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 | 일 시 | 2016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 대 상 | 총회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 회원
- | 주 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 | 문 의 | 010-5313-3379, 010-8541-0191, 010-3784-3731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진등용 목사
새소망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벨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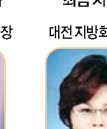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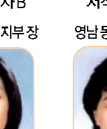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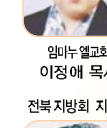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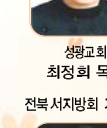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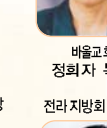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행사부장	경조부장	복지부장	홍보부장	기획부장	선교부장	친교부장	봉사부장	정보통신부장
 순복음천안교회 김효신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희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순복음돈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반송교회 한순남 목사	 임신벨교회 조영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조윤주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부활순복음교회 신영희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부지방회 지부장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경기북부지방회 지부장	용인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이현목 목사	 예수향기교회 장에스터 목사	 은누리순복음교회 최경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협신교회 김남순 목사	 믿음교회 이경자 목사B	 용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김인희 목사	 신명교회 실수자 목사
김포지방회 지부장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주지방회 지부장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성광교회 최영희 목사	 바울교회 정희자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순복음추계교회 김진애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원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열림교회 백영자 목사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북서지방회 지부장	전라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성령말씀교회 임성애 목사	 임마누엘수원교회 심혜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순복음동신교회 정복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한기부 제4대 이사장에 송일현 목사 취임

“주님만 바라보며 한국교회 부흥 원동력 되는 한기부 만들겠다”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항희 목사, 이하 한기부) 제4대 이사장에 송일현 목사(보라성교회)가 취임했다.

지난 1일 보라성교회에서 열린 제3대 이사장 이종만 목사 임임 및 제4대 이사장 송일현 목사 취임에식에서 송일현牧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

게 한기부 제4대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 같다”면서 “죄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한기부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1부 예배는 양병환 목사(상임회장의 사회, 임

준식 목사(선교회장)의 기도, 김연호 목사(해외회장)의 담전 6:11-12 성경봉독, 강봉일 목사(증경회장)의 ‘너 하나님의 사랑아’라는 주제의 설교, 이용규 목사(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계속된 2부 이사장 이취임에서는 정여균 목사(상황윤영본부장)의 사회로 장항희 목사(대표회장)의 인사, 이종만 목사의 이임사, 송일현 목사의 취임사, 노태철 목사(증경회장)의 격려사, 증경회장인 심원보 목사, 김조 목사, 최영식 목사의 축사, 공로패와 취임패, 축복의 열쇠 증정 등이 이어졌다.

한편 송일현 목사는 리버티 신학대학교 명예목회학 박사, 필라델피아 킹데이비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명예박사로 한기부 44대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보라성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죽으면 살리라(설교집)> <목사와 성도의 행복한 사랑이야기> 등이 있다.



CBS 기독교문화유산해설사 과정 개설

다섯 차례 실무 강의 후 제주순례길 현장실습

CBS교육문화센터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의 개신교 주요 문화유산의 답사를 기획하고 해설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독교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다섯 차례의 실무 강의로 진행되는 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세 시간에 걸쳐 △한국의 기독교 근대사 수업(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박사) △신앙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 사역지 강경성결교회 등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유적지 교회 목회자들이 직접 강의하는 현장보고 △수강생이 기독교문화유산답사를 직접 기획하고 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강좌로 구성되며 1월 28일(목) 첫 강의를 시작되어 매주 목요일 이어진다.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은 제주순례길을 직접 답사하면서 현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해설사 과정을 마무리한다. 이밖에에도 10차례의 현장

답사 기회가 있어서 수강생이 선택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CBS는 국내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을 교회의 교사나 지도자들,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교회 담임목사나 학교교수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강의료의 20퍼센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은 현재에 직접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기독교문화유산답사 전문여행사의 설립을 원할 경우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CBS교육문화센터는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승태 박사와 문준경 전도사의 사역지로 유명한 신앙 증도 중동리교회의 김성원 목사, 그리고 성지순례 전문여행사인 돌봄여행사의 김정관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무료 공개특강을 실시하였다.

(문의: 02-2650-7033)

예장합동 재경호남협 대표회장에 서홍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재경호남협의회 제16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동광교회에서 열려 대표회장으로서홍정 목사를 선출했다.

서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대표회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협의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경호남협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부예배는 상임회장 서홍정 목사의 사회, 대표회장 김영남 목사의 환영사, 증경총회장 홍정이 목사 등의 축사, 특별기도, 증경총회장 김산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총회 안정과 건강발 발전,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협의회 발전과 화원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바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2부회회는 대표회장 김영남 목사의 인도로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를 받은 후 임원선출에 들



어가 전형위원들에 의해 서홍정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다.

이후 신규임원교제, 원로목회지위교회의 효율적 추진 방안 등 2016년 사업계획과 신안건토의 시간을 갖고 폐회했다.

“선택이 사랑의 설날떡국 나눔잔치”

사단법인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이사장 이선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홀몸노약자들과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떡국 한 그릇을 나누기 위해 지난 7년 동안 매년 ‘선택이 사랑의 떡국 나눔잔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떡국 나눔잔치는 올해로 8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행사이며, 개인 및 단체들의 후원과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나눔과 도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월 3일(수) 주안역 남광장과 계양구 소재 본부를 시작으로 2월 5일(금) 서울역 피스한 채플터와 당산역 내, 2월 8일(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잔치를 통해 홀몸노인과 노숙인 등 7백여 명에게 사랑의 떡국을 배식하고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한파 속에서도 훈훈한 온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 1600-4022 사랑의 떡국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8-470070(사랑나눔바자)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사용계획 발표

소외 이웃과 사회적 약자, 세월호 생존자 지원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이 지난해 12월 자선냄비를 통해 모은 성금 71억3542만원(거리모금액 39억9757만원, 기업후원금 31억3785만원)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여성·다문화, 긴급구호·위기가정, 사회적소수자, 지역사회역량 강화, 해외지원사업 및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세월호사고 생존자들을 위한 멘토링 및 교육비/생활비 지원, 합령 특별프로그램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세군 측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아름담고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진 성금이다”며 “자선냄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로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의 힘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450여 개 처소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철주야 수고해주신 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중한 성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자선냄비에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자선냄비 모금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어지게 되며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130여 명의 목표 모금액에 대해 모금활동을 벌이게 된다.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

WEA(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는 ‘2014년 10월에 개최하려다 실패한 WEA 세계지도자대회로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오직 성경의 권위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광주전남협의회 17개 노회는WEA 세계지도자대회 개최를 반대한다.

1. WEA는 복음이라는 가면을 쓴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반대한다.

복음주의라고 칭하는 WEA는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가 아니다. 복음이라는 가면을 쓴 비성경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WEA는 1997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는 2가지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회로 인정하기로 WCC와 로마교황청과 합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으며,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하여도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등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등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WEA의 세계지도자대회 개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WEA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에 반대한다.

WEA는 앞에서는 성경적인 신앙고백을 하면서 뒤로는 WCC 및 로마가톨릭과 교제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바리새적이며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WEA는 WCC와 로마교황청과 더불어 ‘신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선교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유주의 신학과 WCC, 로마가톨릭을 배척하지 말고 이들과 교제, 협력을 추구하는 포용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WEA는 정통복음주의의 노선을 버리고 종교 혼합주의를 택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WCC를 이단이요, 동성애 옹호단체요, 다원주의 집단으로 성토했었다. 그런데 WCC 및 로마가톨릭과 상호 협력을 선언한 WEA의 세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가톨릭과 WCC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에 대하여 저항해 왔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비참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3. WEA는 ‘오직 예수 구원’을 전하지 말라는 개종전도금지를 선언하였기에 반대한다.

WEA는 WCC 및 로마가톨릭과 함께 개종전도금지를 선언하였다. 다른 종교 입장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는 기독교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렸다. 개종전도금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16:15)는 전도명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종인의 사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WEA가 주장하는 개종전도금지를 찬성할 것인지 ‘오직 예수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따라 개종전도금지를 반대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오직 예수 구원’을 전파하

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4. WEA는 WCC나 로마가톨릭과 동일하게 종교혼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WEA의 신학위원장 슈마허 박사는 WCC 10차 부산총회에서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발표하였다. WEA는 WCC의 세계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제10차 WCC 부산총회를 유치한 8개 교단과 3개 기관으로 조직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로마가톨릭과 정교회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2014. 5. 22.)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들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WEA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다. WEA는 다른 종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다른 종교의 교리와 구원관을 인정해야 한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종교통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WEA는 WCC나 로마가톨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일이 어찌 조화되었느냐”(고후 6:15)는 말씀처럼 종교다원주의인 종교통합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신앙이다.

5. WEA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WEA의 세계지도자대회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킨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WCC와 로마가톨릭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WEA의 세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면, 대한민국의 성경적인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이름에 걸맞게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면 WEA 세계 지도자대회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광주·전남협의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조일섭 목사			
고흥보성노회	노회장 이선형 목사	광주노회	노회장 고명호 목사
남광주노회	노회장 박래현 목사	동광주노회	노회장 문영주 목사
목포노회	노회장 김정열 목사	목포서노회	노회장 김정렬 목사
빛고을노회	노회장 이신형 목사	목포제일노회	노회장 송봉선 목사
무안노회	노회장 박종봉 목사	세운전노회	노회장 안상숙 목사
서광주노회	노회장 김용대 목사	순천노회	노회장 김택근 목사
여수노회	노회장 김동태 목사	전남노회	노회장 박경복 목사
전남제일노회	노회장 최병효 목사	함평노회	노회장 김주익 목사
호남노회	노회장 김병택 목사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랑과 축복의 말씀

파루시아비전선교회 전국대회 및 하례예배



파루시아비전선교회 전국대회 및 하례예배가 지난 1일(월) 오전 11시 동대문 패션 1번가에 소재한 KY헤리티지호텔 2층 르세프홀에서 드려져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 더욱 헌신하는 한해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설교본부장 우종희 목사의 대표기도, 기획본부장 이해왕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김천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계 1:1-3 말씀을 본문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도도록 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단 집단의 요한계시록 왜곡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누구라도 쉽게 바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한계시록 책을 집필하고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모두 바로 이해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목사는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중 미래의 꿈이요 소망이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본부장 최본우 본부장의 봉헌기도, 민족사광선교회 이사 이교원 목사의 봉헌찬양 후 대표회장 김천기 목사의 위촉패수여가 있었으며 예정 합동보수 총회장 손현근 목사는 축사를 통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했다.

기독교지도자협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참석하신 회원들과 성도들 모두 함께 사해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주고 받는 등 사해 더욱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파루시아비전선교회는 앞으로도 귀한 말씀증거사역의 감당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7일(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요한계시록세미나를 갖는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이 시대 꼭 필요한 전도법

저는 태안에 있는 개척한지 7개월 된 사랑과 은혜교회 순분자 사모입니다. 제가 가족세트 전도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동기는 사모님 카페를 통해 소개받고 서울 면목동에 위치한 푸른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주변에 전도실습을 나가서 평내순복음교회 담임이면서 가족세트전도이카데미 세미나를 전국에 다니시며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강권적인 영혼구원의 열정을 갖고 사역하시는 가족세트전도회장 박영수 목사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전도법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길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로 시작된 가족세트 전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의 강권적인 안수기도를 통한 영접기도에 제압당하는 모습에 모두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다가 쉬면 영혼이든지 안 믿는 영혼이든지 손을 저으며 거절하다가 목사님의 기도로 꺾이지 않아 영접으로 답하게 하는 영접기도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과 조롱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세태 속에 꼭 필요한 전도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깨달아서만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목사님께 소개하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태안지역의 영혼들을 우리 손에 맡겨 주신 것에 대한 사명을 감당키 위해서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태안지역을 기정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2박 3일간 시간을 할애 받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던 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반반이기에 저는 서울 상봉동에 위치한 명성교회에서의 전도 세미나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전도의 현장을 체험하고 감동과 도전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가며 준비 기도를 하고 있던 중 드디어 태안 사랑과 은혜교회에서의 가족세트전도세미나와 성령치유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과 주일교회에서 전도와 치유를

시도하는 몇몇 성도들과 집회 전단지들 보고 달려온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성전은 뜨겁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첫날 저녁집회는 역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우와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전도코칭과 전도실습시간에는 그동안 꾀만 전도로 얼굴을 익혀왔던 사업장들을 돌면서 박영수 목사님의 1분간의 기도로 영접하게 하는 가족세트 전도로 한 시간반 정도의 시간에 20여 사업장에서 교패를 붙이고 즉석에서 교패를 받아 안수성수 하기로 약속까지 받아내는 마치 초대교회 전도현장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항상 전도는 마음에 간절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영접시키지 못하는 아쉬움만 안고 있었는데 박영수 목사님의 이 가족세트 전도는 이 시대 이 땅에 꼭 필요한 전도법임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직접 찾아가서 영접시키고 구원해야 할 사역임을 주변의 개척교회들과 아는 사모님들을 통해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제게는 더없는 기쁨임을 알라야겠습니다.

축복기도를 해 주면서 교회 출석을 약속 받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가족들 이름까지 모두 알아내어 구원받은 초신자들의 명단을 놓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1분 동안의 기도를 통해 점층점을 이루고 영접까지 하게하며 교회출석을 권유하고 안 되면 사업장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족세트전도법은 감동해 하며 세상 공통 가운데 해마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놀라운 방법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 손문자 사모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이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재개발 명분하에 교회 강제수용을 중지하라”

한국교회재개발공동대책위 기자회견서 밝혀

한교연, 한장총, 한국교회언론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교회재개발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언 목사, 김수을 목사 / 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 공권력에 의해 지역사회의 정신적 건강을 함양해온 공익기관이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교회들이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인 대안없이 강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전국 1만 2천여 교회가 무너졌으며,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중앙토지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일방적인 수용재결로 111년 된 도농교회와 6년 된 가운교회, 26년 된 경성교회도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는 교회를 강탈하는 편향적인 종교탄압이며,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도농교회와 경성교회 성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수용으로 교회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며 “110여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마을공동체



의 핵심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해온 교회를 허물고, 헐값에 강제 수용하려는 경기도시공사와 중토위의 결정에 대해 모든 성도들은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정부는 1)합없는 교회를 강탈하는 편향적 종교탄압을 하지말라, 2)공권력의 이름으로 교회의 정당한 권

리를 묵살하거나 강제수용하지 말라, 3)공공개발지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의 공익기관인 교회에 대한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4)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와 이에 근거한 종교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종교편향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사법당국에는 탈법과 관련된 기관과 당사자들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제57차 서울지역 계시록세미나

깨어 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 신앙인권위원회 와 선지자사명원이 주관한 제57차 서울지역 요한계



시록세미나가 지난달 21일 장지동 소재 예루살렘교회에서 열렸다.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오전 강의에서 분제선 목사는 ‘기독교역사상 중요한 세 번의 성회가 있는데 그것은 미스바성회(삼상 7:1-9)와 오순절성회(행 2:1-4) 그리고 시온의 성회로, 이중 미스바성회와 오순절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성회, 시온의 성회는 앞으로 있게 될 성회로 이 성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분 목사는 계속해서 “구별방법은 알곡과 컙정이, 반석위에 세운 집과 모래위에 세운 집, 기름등불 준비한 처녀와 준비 못한 처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거룩히 구별한 지를 검열하여 쓰신다”고 강조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 영 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임 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임 중 달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이 규 호 목사)

예하성강원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사이버신학과정 운영 중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회망로 87
- T E L : 033)434-3136, 010-7504-0172
- e-mail : li4499@naver.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무슬림의 신(神)일 뿐

최근 미국 예일대의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교수의 저서 ‘알라’가 국내 기독교 출판사에 서 번역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볼프 교수는 ‘하나님과 알라가 같은 신’인데, 기독교와 무슬림이 동일한 대상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성경이나 꾸란(이슬람 경전)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신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선험 존재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 유사성으로 인하여, 같은 신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런 볼프 교수의 생각은 그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서 1990년대 유고연방에서 종교간 갈등의 비극을 경험했고, 현재 교수로 있는 미국에서도 2001년 무슬림에 의한 9·11테러를 경험하면서,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대화를 위한 접촉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물론, 종교 간 문제로, ‘인종 청소’나 ‘종교 차별’이나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재 무슬림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무차별적 살해’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것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가 신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볼프 교수의 주장으로, 그는 ‘정치신학’을 방지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려는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이며, 사단의 계략이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타짜(여짓말을 허용하는 교리)를 활용한 선교전략으로 기독교인들을 혼동해 빠지게 함으로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전략이 하나님과 알라는 동일 신이라는 것이다. 한 글로 된 꾸란도 역시 ‘알라’를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알라는 동일한 신이라는 혼동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알라(Ahah)는 무함마드가 속했던 꾸라이시족이 섬기던 종족신인 달신(Moon god)이었다. 달신의 딸들은 알라트, 웃짜, 마나트였다. 이슬람 모스크 천정에 부착되어있는 초생달과 이슬람 국가의 국기 마다 그려져 있는 초생달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면 초생달은 이슬람의 상징이다. 알라를 아찌 감히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기독교의 모세오경과 이슬람의 모세오경이 같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타짜야 전략이다. 꾸란에 있다고 주장하는 모세오경은 실제명이 없으며, 레위기가 빠져있다. 단지 모세오경에 있는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의 타짜야 선교전략을 경계해야 한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극히 일부의 유사성을 마치 뿌리가 같은 종교로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 국내 100여 개 교회에서 이슬람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모 대학교의 이희수 교수를 강단에 세워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강연케 하는 것은 이슬람 타짜야 선교전략에 기독교 안방을 내준 것이다. 성도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선교적인 면에서, 일체의 ‘상호주의’를 배제하고 절대 이슬람주의를 펼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나님과 알라가 같다는 식으로 이해된다면, 기독교는 이슬람에 의하여 완전히 굴복당할 것이 뻔하다.

흔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관계를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만을 강조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도, 7세기 후반에 일어난 이슬람교가 무력을 통해 무차별적인 포교 확장으로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잇달아 유렵의 기독교 성지들을 무너뜨리면서 일어난 전쟁이었다.

지금도 이슬람은 끊임없이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그들은 타짜야 선교전략에 의

해 하나님과 알라가 같다는 식의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는데, 여기에 기독교의 신학자가 하나님과 알라의 일부 신적 유사성 때문에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훼손시키고,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바, 이슬람에 의한 침탈병을 줄 수 있다.

물론, 볼프 교수도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신의 명령에 대한 신념에 따르면서도, 정치적 지붕 아래 평화롭고 건설적인 공생을 할 수는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혹자들은 한국교회가 이슬람포비아를 나타내는 것은 그들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며,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고 혹평하고, 정치신학 기반의 연약으로 몰아가지만, 현재 무슬림들의 과격하고, 비인격적이며, 비인간화의 비뚤어진 행동을 보면서도, ‘잘못 이해’를 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든지, 의도적일 것이다.

진정 종교간 대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제언을 할 용기가 있다면,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무엇인데, 왜 저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꾸짖어야 한다. 볼프 교수의 종교 간에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무슬림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해에 있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조차, 하나님과 알라가 같은 신이라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차이와 차이가 너무 분명한데, 그러한 부분은 생각한 채, 부분의 비슷한 것을 ‘같은’으로 만든다면 너무도 위험한 행위이다.

사실대로 ‘전혀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종교로서의 평화적 도움과 역할에 대한 대화의 시도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안타까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특히, 장기기증 등록자가 늘어나야 실제 장기기증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KONOS의 안일한 대처가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7.7%가 장기기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장기기증 참여 의사가 있으나 실제 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중 41.1%가 ‘장기기증 등록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만약 지난 2008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원에서 장기기증 등록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삽입했다면, 운전면허 응시자 중 1/3 가량이 장기기증 등록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설

내 영혼의 긴장을 풀지 않는 설 연휴

소독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소비하고 즐기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다. 지난 1.23 토요일과 주일을 거치는 휴일엔 폭풍과 폭설이 제주도에 밀어닥쳐 3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설해가 있었다. 여객기 결항으로 자그마치 9만 여 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발이 묶였고 대부분이 관광객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중국 관광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으로 가려는 국내 승객들이었다 한다.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자 각자 쓸 쓸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데 맞팔 권리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빈부 갈등이 완화되고 건강해 진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소비 생활이 늘어날수록 보다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내 이웃에 어려운 이들도 있으니 소비를 줄여서 그들을 도와주는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일은 성도의 아름다운 미덕이다.

새해 5일 설 연휴를 맞았다. 국내외로 명절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어느 때 보다 많은 듯하다. 연휴를 즐기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 명절이나 연휴와 같은 시기엔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부각되는 때임을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한층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설을 맞아 인구 대 이동을 하고 일가친척 친지들을 만나 환한 정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아를 단단히 동여매자. 성도를 각지는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인가 살피고 나누고 베푸는 설이 되게 하자.

그에 더하여 염두에 둘 일 있다. 흔히 명절이나 연휴 기간이 되면 선물도 오가고 영적인 것들 보다 물질적인 것들이 더 우리 생활 주변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여전히 영적인 방면에 두어야 하겠다. 연휴를 보내며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겠다.

북한 억류 목사들의 생환을 위해 기도하자!

북한 김정일은 집단은 북한에 인도적 목적으로 입경한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적을 가진 목사나 선교사 등에 대해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을가미를 씌워 체포하고 가혹한 인권 탄압을 해 왔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담임목사인 임현수 목사는 2015년 초에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다가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 당했다. 임 목사는 여러 차례 북한을 왕래하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음에도 끔찍한 형벌에 처해졌다. 북한은 2014년에도 한국인 김국기·최춘길 씨 등 2명을 억류했으며 이 중 김국기씨는 선교사 신분으로 북·중 국경 지역에서 대북 선교사업을 하다 체포됐다.

북한 당국은 2015.5. 이들에게 간첩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제시키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1996년 7월 억류한 안승은 목사는 선교 목적으로 들어갔으나 체포된 이후 아무 소식도 없고 고통을 견디다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2001년 중국 연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남북된 김동식 목사도 북 보위부에 의해 납치돼 가혹 행위를 당하고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체포된 김정욱 목사도 간첩죄로 ‘노동교화형’을 받은 후 실종상태라고 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종교인을 활용하여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저들의 이용 가치가 끝났다는 듯 외교 흥정을 통해 미국 등 제 3국 크리스천들은 선심을 쓰듯 석방해 왔다. 그러나 유독 같은 민족인 한국 목사들은 1990년 대 이후 석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인권 탄압으로 인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아로 기도하고 있는 북한 왕대 목사와 선교사 등을 가장 먼저 석방해야 한다. 주님의 종들을 도와주시는 앎을 망정 모진 박해를 가하디기는 하늘 보좌의 진노가 언제 퍼부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안 시급

장기기증 등록 문구 삽입에 관한 기자회견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달 21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 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등록자를 모집하기 위해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등록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본부는 “미국, 영국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를 통해서 장기기증 등록의 대다수를 받고 있으며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등록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삽입하여 응시자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그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기증 등록자가 국민의 48%, 영국 역시 국민의 31%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KONOS에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KONOS에서 당시 법에도 없던 운전면허 응시원서 원본을 발송해 줄 것을 주장하여 제도 시행이 무산되었다”며, “그 이후로도 본부는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담당부처의 녹장으로 8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음주의가 어떻게 로마교 가톨릭의 비 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를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포용하고 일치를 도모한단 말인가?

루터는 로마교황을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출처 : 루터,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우리 교부들의 예언 믿음), vol.2, p.291, 256) 라고 하였고,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출처: 칼빈, Tracts(소책자), vol.1, p.219-20) 라고 하였으며 존 낙스는 “수 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 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출처: 존 낙스, The Zurich Letters(취리히의 편지), p.199)라고 하였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론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출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 라고 증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믿음의 선전들은 목숨건 저항과 성경적인 개혁으로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오늘 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이 정통기독교교회이다.

그러나 복음주의라고 하는 WEA(세계복음주의연맹)는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위에 세워진 로마교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성경적인 교리와 제도를 제시하여 바른 길로 인도 하려 고는 하지 않고 도리어 존중하고 포용하며 그들과 오히려 일치를 도모한다. 이 같은 WEA의 행위는 예

수님의 죽으심과 믿음의 선전들이 흘러 피로써 세워진 역사적인 정통기독교교회가 아니며 반역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WEA는 종교다원주의 WCC와도 뜻을 같이하며 협력한다. 이 같은 정체를 가진 WEA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로서 1951년도에 세계복음주의협의회로 출발하여 2001년도에 WEA로 개명한 것이다.

복음주의 핵심인사는, “WEA는 20세기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학적 근본주의 사이에서 미국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산물이다. 이 운동은 한국과 전 세계로 번졌고 그 영향권 안에서 한국복음주의운동도 출발했다.”는 중언처럼 WEA는 역사적인 정통기독교교회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WCC와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위에 세워진 로마교 가톨릭까지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는 포용주의이며, 이들과 협력하며 일치를 도모하는 역사적인 정통기독교교회에 대한 반역하는 정체성을 가졌다. 이 같은 WEA 정체성과 행위는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전들의 고귀한 희생들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수를 지향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어떻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주관단체가 되어 한국교계 안에서 개최한단 말인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 같은 처사는 이적행위기에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신복음주의 WEA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주후 2016년 2월 6일

WEA 반대운동연대 회원 일동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 12. 21(월) ~ 2016. 02. 18(목)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 02. 18(목)
- ③ 합 격 자 발 표 : 2016. 02. 19(금)-개별통보
- ④ 전 형 료 : 20,000원(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 12. 21(월) ~ 2016. 02. 18(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 12. 07(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 ④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 02. 22(월) 장소:총회목회대학원
- ⑤ 합격자발표 : 2016. 02. 23(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주·야간)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 12. 07(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 2016. 02. 22(월), 장소:총회신학교
- ⑤ 합격자발표 : 2016. 02. 23(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